

쪽방촌 사람들의  
희망찾기

# '같은 지역 판세상' 도시 빈민들 한평 남짓 쪽방, 언제쯤 별들까



사람들은 '행복'이란 두 글자에 큰 매력을 가진다. 잠재된 노숙인이라 할 수 있는 쪽방촌 사람들은 특히, 행복한 삶에 목말라하며 그런 삶을 동경한다. IMF외화위기와 경기불황, 금융위기 등으로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고, 그 결과 거리노숙인들이 양산됐다. 그들은 노숙과 쪽방을 오가고 있다. 이제 그들은 외면해야 할 대상이 아닌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대상이 됐다는 뜻이다. 지금 쪽방촌 사람들은 자활과 자립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우리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이들에게 행복을 찾아줄 수 있음을 쪽방촌 사람들의 삶을 통해 확인해봤다.

“우리 사회는 누구라도 쪽방촌(노숙인)의 일원이 될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네 부모이고, 형제이고, 자녀들입니다.”

3일 만난 윤승걸 대구쪽방상담소장은 “여름엔 돈이 없어 거리로 나서고, 겨울엔 2.5~4.0㎡의 1평 남짓한 조그만 방에서 15만~20만원의 월세를 내가며 살아가는 쪽방촌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대구의 쪽방은 여느 대도시와 마찬가지로 역, 인력시장, 사창가, 버스정류장 등 교통이 편리하고 이동성이 강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주로 북구 칠성동, 대현동, 고성동, 노원동, 침산동, 서구 내당동, 비산동, 원대동, 동구 신암동, 신천동, 중구 대신동, 성내동, 동인동, 남구 대명동, 달서구 성당동에 쪽방이 밀집돼 있다.

윤 소장은 “특히 대구역 주변 칠성동과 동대구역 주변 신암동 일대, 북부정류장과 달성공원, 중앙공원 주변 일대에 집중적으로 쪽방촌이 밀집돼 있다”고 했다.

이곳 거주민들의 다수는 경기불황 탓에 실직자로 전락했거나 병들어 가정이 해체된 사람들이다. 그 숫자는 2001년 735명에서 2008년 811명, 2009년 850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중 약 90%가 남성이고, 연령층별로는 40대가 약 40%로 가장 많다.

윤 소장은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법은 아직 미흡하다”고 했다. 거리노숙인을 지원하는 법은 존재한다. 그러나 월세이지만 거주할 공간이 있다는 이유로 준노숙인인 쪽방거주민을 보호할 법은 없다.

특히 최근 무분별한 재건축, 재개발 등으로 최후의 보루나 다름없는 쪽방이 사라지고 있으면서 노숙인들은 고시텔, 만화방, PC방 등 잠재된 쪽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노숙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및 의료지원, 관련지원법 제정 등의 자활·자립지원책 확대와 이들을 숨기려고만 하는 사회적 풍토와 인식의 개선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물론, 예전보다 지원 프로그램과 후원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윤승걸 소장은 “올해는 쪽방거주민의 자활을 돕기 위해 무료직업소개소와 주거비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라며 “오랜기간 심리적으로 황폐해진 이들 스스로 자활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며, 최근 다양한 자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희망을 품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윤승걸 소장